

2015 년 제안

이 땅의 소금이 되어

아메리카 대륙의 젊은이들에게 귀기울임

2015년 8월 9일부터 16일 까지 떼제에서 열릴 “새로운 연대를 위한 대회”를 앞두고, 저는 몇몇 형제들과 함께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지난해와 두해 전,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방문한 데에 이은 것이었고, 2015년 초에는 오세아니아의 젊은이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 젊은이 모임을 가진 후 카리브해 연안의 푸에르토리코, 아이티,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을 찾아갔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들이 떼제를 찾아와서 사우스다코다 주의 원주민 보호구역인 파인 리지에서 “화해의 순례” 모임을 개최하자며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형제들은 북아메리카로 되돌아가 여러 지역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2014년, 파인리지의 한 그룹이 다시 떼제를 방문했고 이런 잦은 교류를 통해 라코타 (Sioux) 인디언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적으로 신뢰가 깨어지고 배신당한 상황에서조차 어떻게 신뢰가 다시 생겨날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2007년에는 볼리비아 그리고 2010년에는 칠레에서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40년전부터 우리 형제 몇사람이 브라질 동북부 지방의 바히아 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의 상황에 대해 실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땅의 소금”이 되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 땅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폭력과 마약 밀매에 점철된 사회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중의 신앙심은 하느님께서 모두에게,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더욱 더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환대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평화가 자라나게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쿠바의 많은 젊은이들은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쿠바 젊은이들에게 땅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희망을 간직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티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땅의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그 신뢰가 있기에 그들은 만사를 부활의 빛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0년의 대지진조차도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를 꺾어놓지 못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처럼 푸에르토리코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우리는 삶의 난관과 불의, 빈부 격차의 확대, 이민자들의 곤궁한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정서가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과 자극이 됩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을 복돋아줍니다. 형제 자매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각자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 간의 연대와 책임감이 근간을 이루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이바지합니다.

f. Alois

편지 “새로운 연대를 향하여”(2012-2015)는 로제 수사가 영원한 삶에 들어선지 10주기가 되는 2015년 8월 16일까지 우리의 공동 여정을 위한 지속적 길잡이가 됩니다. (2015년 프로그램은 하단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땅의 소금”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2015년 제안

이 땅의 소금이 되어

첫째 제안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맛을 나눕시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마태 5:13)

땅의 소금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며, 우리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땅의 소금이 됨으로써 우리는 삶의 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할 때 우리 삶은 의미있는 것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하여 “계속 애써 노력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하고 자문하게 된다면, 아주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맛을 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보십니다.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완성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둘째 제안 :

화해를 위해 온 힘을 다합시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여라.”
(마태 5:23-24)

우리 모두에게는 한 인류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려는 열망이 있지만, 이것은 가정 안에서나 친구 사이에, 우리가 사는 도시나 마을, 국가들 사이에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습니다. .

그리스도인들의 화해는 일치를 추구하는 인류 안에서 하나의 표징이 됩니다.

화해가 절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위해 헌신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편견 속에 가두어 놓는 두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물려받은 과거의 원한을 주위 사람이나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 사고와 생활 방식, 종교, 문화나 사회 배경이 다른 이들 간의 만남을 더욱 담대하게 추진해 나갑시다.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 애쓰면서 서로를 초대합시다. 용서를 청하고 용서할 용기를 가집시다.

셋째 제안

평화를 위해 일하십시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태 5:9)

평화는 분쟁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것은 행복이며 모두에게 합당한 자리를 주는 것, 그리고 충만한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평화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그 평화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창조물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평화를 열망할 때 우리 마음은 드넓어지고 모두를 향한 자비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생활과 이웃간에, 매일의 활동에서 남을 맞이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평화는 또한 더 큰 규모에서 정의의 근본에 있습니다. 사치와 가난이 공존하는 사회 안에서 각종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과연 놀랄 만한 일일까요? 부의 나눔은 긴장을 해소하며 공동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진작하기 위해 헌신하면서 자기 나라의 정치나 비정부 단체, 혹은 직장에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책임을 감당합니다.

- 평화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민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입시다. 불의한 상황을 알아보고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합시다. 현대적 노예제를 찾아냅시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마다 반시간씩 침묵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섯째 제안

우리의 땅(지구)을 돌봅시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 5:9)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리를 남겨 둡니다. 그들은 세상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방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한 폭력의 충동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도록 맡겨진 것입니다.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 민족들 사이에 또 미래의 세대들과도 연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연자원을 소비하고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늘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활 방식을 모색하는 데에는 우리의 모든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인 동시에 과학 연구와 예술적인 영감을 자극하고 사회의 새로운 계획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 삶의 방식을 살펴보고 피상적인 것이나 과잉된 것들을 가려내서 단순화합시다.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의 공간을 엮시다. 우리는 무엇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피조물(창조세계)을 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를 위해 휴식과 관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때제 홈페이지에는 여러 행사 안내가 실립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와 관련한 활동이 있으면 다음 주소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choes@taize.fr

2015년 떼제

새로운 연대를 향해

공동체 75주년
로제 수사 탄생 1백주년
(1915년 5월 12일 - 2005년 8월 16일)

2015년 5월

+ 젊은이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로제 수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자는 그의 호소를 실천하기 위해 기도회를 열고 연대의 행동을 보여 주도록 초대됩니다.

+ 5월 10일 일요일 떼제공동체는 떼제 주변의 주민들을 초대해서 감사 기도회를 엽니다.

2015년 여름 :

매주 일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젊은이들의 국제 모임이 열리고 지난 3년 동안 각 대륙에서 젊은이들의 모색과정을 요약하는 워크샵이 개최 됩니다.

수도 성소의 현대적 의의에 관한 성찰

2015년 7월 5-12일

수련 기간에 있거나 이미 서원을 한 40세 미만의 수도자들의 국제 모임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의 수도회와 수도원 책임자들의 도움을 받고, “수도 생활의 큰 나무”에 대한 로제 수사의 특별한 공헌에 기초하여 (떼제는 거기에 접붙인 작은 순일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수도 생활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성찰할 것입니다.

새로운 연대를 위한 젊은이대회

2015년 8월 9일 일요일부터 8월 16일 일요일까지

로제 수사의 생애를 기념하면서 2015년 8월 9일부터 16일까지 18세 부터 35세 사이의 젊은이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로제 수사의 유산을 맞이하고 내면 생활과 연대를 향한 새로운 동력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는 기쁨, 단순소박함, 자비심의 참된 행복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준비합니다.

이 주간은 아래와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온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 인류 형제애에 관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인류의 연대의 원천을 발견하고
- 우리 사회의 더 공정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다음과 같은 이들과 대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 + 연대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과 국제 기관의 책임자들
- + 교회의 지도자들
- + 다른 종교의 신자들
- + 예술과 창조의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젊은이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오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제 수사를 기념하는 감사의 기도회.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로제 수사가 신학 사상에 끼친 공헌에 대한 콜로키움

2015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신학생, 연구자 혹은 교회의 사목(사역)에 종사하는 40세 미만의 젊은 신학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국제 신학 콜로키움. 여러 나라의 개신교, 정교회 및 가톨릭 신학자들이 떼제에 와서 로제 수사 사상이 신학연구에 어떻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규명해 줍니다.

더 자세한 안내와 신청:
www.taize.fr/2015